



BBS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사진 오른쪽)과 부경대(총장 박맹언)가 생명 존중과 자연 사랑의 사상이 뿌리 내리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BBS부산불교방송과 부경대학교는 3월 24일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생명·생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약내용인 △생태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실천적 생명교육 협력 △해중 녹화를 통한 바다숲 조성 및 수생 생물의 생명 기르기 실천운동 등을 추

**부산불교방송·부경대
실무위 협의기구 설치**

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협의기구로 설치해 공동 운영하게 된다.

박맹언 총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본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며 "환경의 보전은 곧 생명에 대한 경의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곤 사장은 "이번 협약은 생명경시가 만연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에코비시터를 비롯해 생태와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대학인만큼 앞으로 많은 노후우를 통해 부산불교방송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경대는 2008년 녹색입국 '에코비시터(Ecovisity)'를 선언하고, 생명에 대한 경의심을 바탕으로 생태적 철학을 실천하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학문에 정진에 힘써왔다. **박지원 기자**

출가열반절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팔상성도 법좌 · 일만배 기도 · 정진법회 등 다채

부처님이 수행의 길에 나선 출가절과 깨달음을 완성한 열반절 기간을 맞아 부산·경남 지역 각 사찰에서는 다양한 법회와 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출가열반절인 3월 23~30일(음력 2월8~15일) 매일 오전 10시 경내 설법전에서 팔상성도에 담긴 의미를 일깨우는 특별한 법회를 마련했다.

첫날인 23일에는 강주 현진 스님이 법석에 올라 '팔상성도' 중 '도솔대위상'에 얽힌 부처님 전생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했다.



‘사문유관상’ △광우 스님의 ‘유성출가상’ △율주 해남 스님의 ‘설산수도상’ △강주 스님의 ‘수하형마상’ △정안 스님의 ‘녹원전법상’ △정우 스님의 ‘쌍림열반상’ 등 법문이 차례로 마련돼, 하루 평균 5000여 인도가 법회에 참석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출가열반절을 맞아 ‘제5회 일만배 정진기

도’를 봉행했다.

출가열반절 기간 동안 신도들은 오후 7시부터 대웅보전에서 1250배씩 총 8일에 걸쳐 1만배를 했다.

홍법사는 “참가한 200여 신도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웅보전을 정진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고 설명했다.

심산 스님은 입재법회에서 “이번

기도를 통해 저마다의 발원과 함께 대웅보전 옥상 대불 봉사 또한 원만 회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 성주사(주지 원정)는 출가열반절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에 걸친 ‘제13회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성주사 신도들은 첫날인 23일 홍교 스님(범어사 금강계단 전계사를 시작으로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도영 스님(조계종 前 포교원장),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법산 스님(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무비 스님(조계종 前 교육원장),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전계사), 법타 스님(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등 총 8명의 대덕스님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청했다.

원정 스님은 “이번 대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더불어 참다운 삶의 행복을 구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사찰음식 속 불심 전하고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경주 자운사 주지·향적원 대표 혜연 스님

경주 마동의 한 사찰음식전문점에서는 모든 음식을 스님이 직접 요리한다.

스님이 차린 상을 받기가 황송해 손님들은 영거주축한 자세로 일어나 그릇을 받으려고 한다. 스님은 이를 말리며 오늘 먹게 될 음식과 반찬에 대해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인다.

향적원 대표이자 경주 자운사 주지 혜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찰음식으로 맛있는 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혜연 스님은 한국 불교문화의 중심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는 바로 아랫동네에서 인일하게 자운사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스님은 가장 잘 할 수 있고 불교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찰음식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를 발원하고 2008년 3월 향적원을 열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적자를 보며 경영난에 허덕이자, 스님은 변화를 시도했다.

손님들에게 ‘사찰음식은 나물반찬에 장아찌 정도가 전부’라는 편견을 깨 수 있게 하는 기본에 충실한 사찰음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화학조미료는 물론 오신채를 쓰지 않은 진실한 밥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산지에서 농사짓는 단계부터 눈으로 확인하고 가져옵니다. 음식을 만지는 사람이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을 때에는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만든 음식은 먹지 못하니요.”

향적원만의 대표 요리인 ‘잡

쌀콩고기’를 만들기 위해 다지는 칼질 횟수만 1700번이다. 이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며 다져 정성을 더한다.

콩고기말이에 쓰이는 묽은나물은 울릉도에서만 나는 명이나물을 쓰고, 연잎밥의 연잎은 전라도 무안에서 직접 공수해온다. 김치는 스님이 손끝에서 짓갈 대신 버섯과 다시마육수로 감칠맛을 낸다.

처음에 손님들은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져 싱거운 간과 짭짤한 채소본연의 맛에 당황했다. 스님은 “양파즙이라도 써서 대중에게 익숙한 맛을 내라”는 비평도 받았다.

“스님이 무슨 식당장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편견이던 시선도 묵묵히 감수해야 했다. 그립에도 불구하고 혜연 스님은 사찰음식을 계속 요리해야 하는 간절한 법심이 있었다.

“15년 법계 동고동락하는 10여 명의 학생과 노스님, 홀로머르신들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도소·양로원·장애시설 등에 법회를 나가 후원하기도 합니다.”

혜연 스님은 “사찰음식에 깃든 수행정신과 불교문화를 전하고, 그 속에서 인생불사를 실천하는데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혜연 스님의 맑고 청정한 수행법문이 만드는 불국토를 기대해 본다.

(054)775-0014, www.cityfood.co.kr/h1/hyanggiuk

박지원 기자



“스님과 인연지어 불심 키워가길...”

혜연정사 원허 스님, 첫 유발상좌 39명 수계

“스님, 호쾌함이 뭐예요?”

난생 처음 수계를 받게 된 박희양(11) 어린이는 호쾌함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다. 희양이와 같은 또래 어린이 39명은 수계식의 한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부산 연산동 혜연정사(주지 원허) 대웅전에서 3월 23일 주지스님의 첫 번째 유발상좌 수계식이 봉행됐다.

유발상좌는 사발 출가하지 않고 재가자의 삶을 살면서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린 자녀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하며 스님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이날 수계식은 유발상좌에 관한 주지스님 법문과 <부모은중경> 합송, 수계의식, 촛불명상 ‘참나를 찾



원허 스님이 생후 1개월된 아기에게 수계식을 하고 있다.

아서’ 등 순으로 2시간 여 동안 엄격히 진행됐다.

수계식에서는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부터 영·유아 3명, 초등학교생 17명, 중학생 5명, 고등학교생 7명, 대학생 5명 등 39명이 원허 스님의 유발상좌가 됐다.

최연소 유발상좌가 된 박주아(생후 1개월)의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주지스님이 지어주셨다. 주아

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찍 만나 바르고 착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허 스님은 “갑수룩 젊은 불자들이 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부모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자녀의 종교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안타깝다”며 “어릴 때 스님과 인연을 맺어주면 내일의 종교관이 형성되고, 전천후 불교를 알아가고 스님과 친밀감이 생긴다. 이러한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 유발상좌 수계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앞으로 유발상좌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해, 그간 부모님들이 하지 못했던 포교를 스님과 절이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부산파라미타 첫 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2010년부터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이하 협회)를 통해 국내에서 첫 시범을 보인다.

협회는 3월 20일 부산 안국불교대학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 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 계획과 성취 목표를 세우고 각 활동을 통한 성취 단계별로 국제기관에서 공인을 받을 수 있다.

파라미타협회는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국제적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513-4306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환귀의 역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문중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화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권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도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번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자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만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지내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액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금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랑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남이 없는 오늘날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